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루 오션 '통계데이터 체험'

광주시교육청-호남지방통계청 '드림러너' 운영



광주시교육청과 호남지방통계청은 23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드림러너' 프로그램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루오션 통계 데이터 체험'을 운영한다.

'통계 데이터 체험'에는 광주 관내 22개 고교, 300여명 학생들이 총 4차시에 걸쳐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통계데이터 체험을 하

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총 4개의 영역으로 '1차시 통계이해 및 미래, 2차시 통계 활용, 3차시 통계 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일상 생활 속 친근한 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의 진로진학프로그램인 '드림러너'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 14개 기관에서 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드림러너'에 참가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에 활동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 학생들의 인기가 높다. 이에 시교육청은 각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시교육청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은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하는 드림러너는 학생들이 낯설면서도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 '통계'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며, 바쁜 업무 중에도 준비에 애써주신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궁금한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진학팀(☎ 062-380-45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과학으로 빛은 꿈, 미래 비추다' 광주과학문화축전 개최



광주시청의용합교육원이 광주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청의용합교육원이 주관하는 '2019 광주과학문화축전'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국립광주과학관(광주 첨단지구)에서 개최한다.

과학으로 빛은 꿈, 미래를 비추

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6일 10시 대존중학교 농악팀의 '길놀이 풍물'을 시작으로 성악중창, 학생댄스(광주중 댄스), 금관5중주(아로스)팀의 화려한 공연과 함께 개막식이 진행된다.

학생, 교원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과학체험마당 ▲이공계진로체험마당 ▲놀이마당 ▲더불어탐구마당 ▲전시마당 ▲공연마당 ▲특별행사 등 7개 마당에 15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과학체험마당의 90개 프로그램은 기초과학, 첨단과학, 전통과학, 융·복합 영역의 과학 원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한다.

이공계진로체험마당은 과학고 및 과학중점고등학교 홍보 및 체험 15개 부스와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등 외부기관 9개 부스로 구성되었다.

놀이마당은 기초과학, 스포츠과학, 첨단과학 영역 등 과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탐구마당은 팀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툴링볼, 우드락비행기, 카프라, 운반로봇, 4D프레이밍, 스티킹도미노 등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창의적으로 과학 미션을 해결한다.

야외공연마당에서는 풍물, 합창, 가락연주, 방송댄스, 비보이 댄스, 과학퀴즈, 과학미술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마당에서는 전자현미경 사진전, 천체 사진전, 곤충 표본전,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교육 홍보전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한다. 또한 국립광주과학관 주관 '우주' 관련 과학특강이 마련되어 있다.

전남보건교사회, 건강증진관 부스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보건교사회가 주관하는 '건강하나! 행복 둘!' 건강증진관이 함평여중 체육관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운영된다.

건강증진관은 일상생활과 건강, 약물오남용 예방, 정신건강 및 성교육 등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20여 개의 체험부스와 전

시부스로 진행된다.

생명탄생의 신비, 세균맨을 잡아라, 손모아 네일, 행복약 만들기, 폐활량 측정 및 손들이 담배맨 등 학생들의 건강습관 형성과 자기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체험 위주의 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학교휴먼예방 공모전 우수작품과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性)'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 100여 개가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끈다. 특히, 전국 유일의 학생 대상 건강증진체험관으로 2016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으며, 전남보건교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양질의 보건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 문화체험의 날 개최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남여수혁신교육지구 토요문화체험 및 수학과학융합체험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여수혁신교육지구 운영 성과를 교사·학

생·학부모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자율혁신학교, 마을학교, 학부모 동아리, 과학교과교육연구회, 수학교과교육연구회,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동아리가 참여했다.

토요문화체험마당에서는 자율

혁신학교의 교육활동 체험부스 33개, 마을학교 4개, 학부모동아리 5개 총 42개 부스가 운영되었다. 과학수학융합체험마당에서는 과학체험부스 17개, 수학체험부스 10개 운영되었다. 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그랜드홀과 야외 무대에서는 여수학생오케스트라 7개팀, 여수학생동아리 12개팀 공연이 펼쳐졌다.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와 진로진학 특강

진도교육지원청



진도교육지원청은 21일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9년 관내 고등학교 설명회 및 진로진학 특강'을 실시했다.

진도는 관내 4개 고등학교인 진도국악고, 진도실업고, 조도고, 진도고 등 특목고, 특성학교, 인문계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골고루 갖춘 지역이다.

관내 고등학교 설명회는, 각 학

교 교감선생님 혹은 진학담당 선생님이 학교마다 갖는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로와 진학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진로와 진학에 대해 다양한 학교급에서 자기주도학습 캠프와 진학컨설팅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전문 강사를 모시고, 진도 지역에 맞는 고등학교 진학과 변화하는 입시 정책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교육지원청, 문림·의향길 탐방 행사



장흥교육지원청은 19일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림·의향길 탐방' 행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민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장흥의 문학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탐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아 150

여 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장흥 특색 교육활동 '문림·의향의 일 계승교육' 일환으로 추진된 문림·의향길 탐방 행사는 1코스는 장흥북부 시간여행(해동사 → 동백정 → 심천공원 → 향교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코스는 장

흥남부 시간여행(방촌유물전시관 → 오현고택 → 효지송 → 후박나무 → 천관문학관)으로 차량 4대가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진행되었다.

탐방 활동지료를 제작하여 장흥 지도를 살펴보고 장흥 명소에 대해 알아보고 각 코스마다 스탬프 도장 찍기, 삼행시 짓기, 탁본체험, 선비체험, 소나무 잎 비교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장흥 지역의 명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장흥 역사에 대해 한층 가까워졌다.

장흥교육지원청은 지역 문헌인을 활용하여 문림·의향의 일 계승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학교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흥 지역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인물 및 역사에 대해 탐구하고 생각을 키워나감으로써 우리 고장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